



요즘 육계농장의 사육 성적 불량에 대해

육계농장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육계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서 육계 농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전과 비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적은 것이 현실이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장의 수익창출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지속적으로 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병아리의 가격, 수급 불균형, 특별한 증상 없이 나타나는 증체를 저하,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쩍 증가하기 시작하는 각종 전염성 질병들은 농가의 수익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는 각종 요인들을 극복해내고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즘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단순한 말이라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막연한 말이라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들이 너무 쉽게 버려진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만 집착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예로 감보로병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농가가 많지만 사실상



감보로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좋지 못한 상황들은 예방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고 효과적임을 생각한다면 예방은 농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방에는 백신 접종, 차단 방역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크게 생각한다면 병아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육기간 동안 병아리와 보다 오랜 시간 접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장을 오래 경영했다고 해서 여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하던 일들을 점점 편한 방식으로만 바꾸어 나간다면 자칫 농장에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요즘에는 환기를 위해 오후 시간대에 윈치 커튼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윈치 커튼을 올려놓은 상태로 한 두시간 정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바람의 세기가 갑자기 강해진다면서 계사 내로 찬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계사 내부의 온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호흡기 질병 발생이 촉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 한 순간의 실수는 병아리의 사육기간 전반에 걸쳐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병아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되며 기본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입추 후 1주일에 승부를 걸자

병아리를 입추한 후 1주일이라는 기간은 평균 35일간의 사육기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사육 성적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입추 당일에는 온도와 습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항생제의 사용을 피하고 물과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꼬마 물통과 사료를 적절히 배치해야 할 것이다.

1주령 이하의 병아리는 눈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물이나 사료를 눈으로 확인하여 찾을 수 없으므로 물통이나 사료는 병아리가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갓 부화된 병아리는 소화기관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사료가 오랜 시간 장관에 머무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다량 증식할 경우 병아리의 정상적인 소화기관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입추시에 경쟁적 배제제를 1~2일간 투여해 주면 소화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발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요즘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1주령 이하의 병아리가 난황의 흡수가 지연되고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계군의 경우 어린 일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0일령 전후에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사육기간 내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며 병아리의 증체가 지연되고 총아리가 심하게 생기게 되어 최악의 사육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계열화 업체들이 1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병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어 농장에서는 1주일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좋지 못한 병아리를 선별해내는 것만으로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병아리를 선별해 내는 것 이외에도 나머지 계군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남아 있는 병아리를 잘 사육해 출하할 수 있다.

입추 후 병아리가 고르지 않거나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역 능력을 증진시키며 활력을 증강시키고 사료섭취율 및 사료효율을 증진 시켜주는 대사촉진제를 투여해 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난황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간기능 개선제 및 영양제를 투여해 주면 이후 사육기간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농장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투약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문제

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약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며 투약을 실시해도 일정 부분의 손실이 뒤따르게 되므로 좋지 못한 계군에서의 투약은 반드시 1주일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투약 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그림 1>.

각종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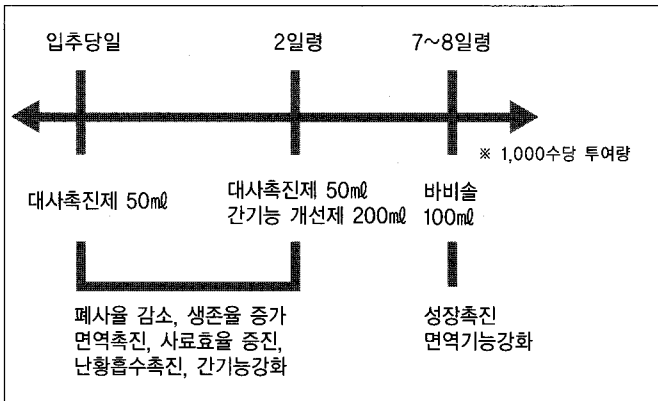
어린 일령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계군은 빠른 일령부터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육 후기 CCRD로 진행돼 많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사진 1>.

또한 감보로병, 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병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되므로 발생 가능한 질병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에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며 계군의 활력이 좋지 않다고 백신접종을 그냥 지나칠 경우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프로그램상에 2~3일의 차이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접종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 일령의 병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사내에서 호흡기음이 들리기 시작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생제를 투약하는 것보다는 천연물질 호흡기능 개선제를 농장에 비치해 두고 우선적으로 투약한 후 경과를 지켜보며 항생제의 투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약추 관리 프로그램 예





항생제의 경우 세균성 호흡기 질병에만 국한적으로 효능을 발휘하므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에는 효과가 없으며 호흡기능의 개선 효과가 없고 어린 병아리의 경우 계군의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천연물질 호흡기능 개선제는 천연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계군의 활력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조기 투약시 호흡기능을 개선시켜 주고 세균성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므로 호흡기 질병 발생시 1차적으로 투약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제이다. 또한 휴약 기간이 없으므로 사육후기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증체 지연시 사료섭취량 증진에 힘쓰자

증체 지연의 원인은 전염성 질병의 발생으로



사진 1 : CCRD로 인한 닭의 부검소견. CCRD 발생시 심장, 간, 기낭, 복강 장기에 흰색 또는 노란색의 막이 형성되며 이런 경우 약제를 통한 치료가 어려우므로 질병이 이와 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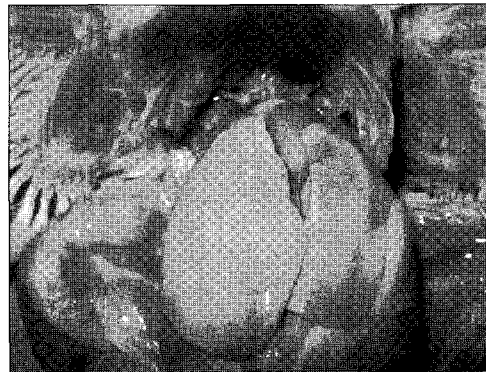


사진 2 : 붕입체성 간염이 발생한 닭의 부검 소견. 붕입체성 간염이 발생시 간이 창백해지고 종대되며 간혹 출혈 반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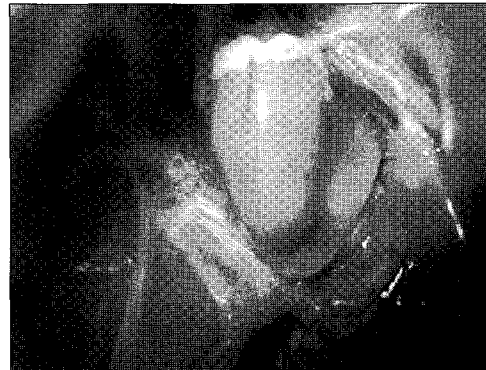


사진 3 : 붕입체성 간염이 발생한 닭의 부검 소견. 붕입체성 간염이 발생시 대부분 심장을 둘러싼 막에 물이 생기는 심낭수종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물이 차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처럼 증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1차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사료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심각한 증체 저하를 동반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붕입체성 간염을 들 수 있으며 발병시 심각한 사료 섭취 및 음수 섭취 저하를 동반하게 된다.

붕입체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3~5월에 발생하며 폐사율은 높지 않지만 질병 발생시 계사내에 병아리가 모두 주저앉아있고 사료나 물을 섭취하지 않으므로 증체가 현저히 지연돼 심각한 증아리가 생기게 된다. 부검시에는 심장을 둘러싼 막에 물이 치는 심낭수종을 보이며 간이 창백하고 종대되며 일부에서는 간



에 출혈점을 나타내기도 한다<사진 2>.

봉입체성 간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료섭취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바이러스성 질병인 만큼 항생제는 별 효과가 없으며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어야 한다.

단, 세균성 호흡기질환이 동시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질병의 완화를 위해 항생제를 병용 투여해 주어야 한다. 사료 섭취의 증진 및 활력촉진을 위해서 대사촉진제를 2일간 투여해 주어야 하며 3일째부터는 성장 촉진을 위해 종합 영양제를 연속적으로 3~5일간 투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료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소화제와 생균제를 혼합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한다 해도 닭들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계사에 수시로 들어가 닭들이 사료통이나 급수기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요즘 육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및 증체 지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살펴해보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아리 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아리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잘 먹고 잘 노는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추 후 1주일 내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C



전상욱 수의사
바이엘코리아 대전지역 담당



세균성 호흡기질환이

동시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질병의 완화를 위해 항생제를

병용 투여해 주어야 한다.

사료 섭취의 증진 및 활력촉진을 위해서 대사촉진제를 2일간 투여해 주어야 하며

3일째부터는 성장 촉진을 위해

종합 영양제를 연속적으로

3~5일간 투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